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김정은, 안방 나들이 '달콤한 나의 도시'로

영화 '우생순'의 스타 김정은(33·사진)이 TV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를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정이현의 동명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달콤한 나의 도시'는 CJ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16부작 미니시리즈 드라마로, 영화 '인어공주'를 연출한 박흥식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25만 부 넘게 팔린 '달콤한 나의 도시'는 사보와 홍보 브로슈어 편집대행사에 다니는 직장생활 7년차의 31세 미혼여성 은수의 사랑과 일을 그린다.

단정하고 평범한 회사원 영수 역에는 이선균이, 7살 연하남 태오 역에는 지현우가 각각 캐스팅돼 김정은과 호흡을 맞춘다. /연합뉴스

눈물로… 개그가 감동 주네 삭발로…

눈물을 흘리며 감동 연기를 하고 있는 '개그콘서트'의 '사랑이 팍팍' 코너. 오른쪽은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쑥대머리' 코너에 출연한 김태환이 직접 삭발하고 있는 장면.

가벼운 웃음 탈피…'리얼리티 개그' 인기

이제 개그도 가벼운 웃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개그맨들은 가슴 찡한 눈물 연기와 필요하다면 삭발까지 감행하는 사실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중이다.

최근 개그계에 부는 '리얼 연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여는 '감동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감동 개그'를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코너는 개그콘서트(KBS 2TV·이하 개콘) '사랑이 팍팍'.

병약하다며 매번 괴력의 힘을 발휘하는 할머니와 손자들이 돈이 없어 겪는 서러움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코너가 최근 '눈물 연기'를 선보였다.

출연진들은 가난 때문에 쌍둥이 동생 중 한 명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설정, 실제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연기를 선보여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야기 전개 상 감동적인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이었지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장면이라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진한 감동을 줬다.

'병약한 할머니' 역할을 맡고 있는 개그맨 이승윤은 "연습 때도 울컥했었다"며 "앞으로도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감동적인 가족애가 담긴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웃음을 찾는 사람들(SBS·이하 웃찾사)의 '쑥대머리' 코너에 출연중인 개그맨 김태환은 삭발 연기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극중에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 역을 맡아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삭발을 한 그는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기 위해 삭발을 했다"고 밝혔다.

인기 개그맨 김대희 역시 지난해 연말 '개그 콘서트'에서 삭발 연기를 펼쳤다.

김대희는 '2007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 코너상'을 받은 뒤 "배우가 삭발을 하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하고 개그맨이 삭발을 하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데 개그맨도 다른 장르 분들 못지 않게 매순간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수상소감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감동'을 키워드로 한 코너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유행어와 특유의 동작 등으로 언어 유희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던 데서 벗어나 한국적인 정서를 파고들며 웃음과 함께 감동까지 선물하고 있는 것이다.

'웃찾사'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 '술 한잔 혀' 등 농촌을 배경으로 하거나 가족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코너 편성을 늘리며 중·장년층의 시청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미디어워치 관계자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시청률 경쟁에 떠밀리면서 일명 '디지털 개그'로 지나치게 웃음만을 추구했는데 최근 들어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코너가 늘어나고 있다"며 "김형곤, 최양락 등이 선보였던 깊이 있는 풍자 개그나 새로운 형식의 개그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싱글파파는 열애 중'
오 지 호

"아들만을 위해 사는 남자 지켜보세요"

"아들만을 위해 사는 남자입니다."

탤런트 오지호가 아들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 만큼 진한 부성애를 가진 아빠의 모습으로 시청자를 만난다. 18일부터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싱글파파는 열애 중'(극본 오상희, 연출 문보현)의 '싱글파파' 역이다.

이 드라마는 낮에는 해충방제사로, 밤에는 이종격투기 선수로 뛰면서 홀로 아들을 키우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첫사랑(강성연)이 아이만 남겨놓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떠난 뒤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절절한 부정이 끓는다.

오지호는 이 작품에서 애틋한 부정은 물론, 엉뚱하고 발랄한 의대생(허이재)과의 로맨스, 실감 나는 이종격투기 장면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못된 사랑' 후속인 '싱글파파는 열애 중'은 MBC '이산'과 SBS '왕과 나'라는 두 사극의 사이에서 방송된다. 사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한자릿수 시청률로 고배를 든 KBS 월화드라마가 이번에 꺼낸 카드는 시청자의 가슴을 파고드는 부정인 셈이다.

연출자인 문보현 PD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싱글파파 강풍호가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도 아주 빛나게, 열심히,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라면서 "신파, 멜로, 로맨틱코미디도 있지만 훈훈한 부성애, 부자간의 따뜻한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원스어폰어타임	42만 69	110만 2천994
2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38만 6천90	377만 8천387
3	6년째 연애중	38만 214	67만 3천552
4	더 게임	37만 9천495	118만 7천796
5	마지막 선물	12만 2천916	21만 105
6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11만 7천734	50만 5천642
7	명장	10만 3천946	34만 5천453
8	찰리 윌슨의 전쟁	7만 5천167	13만 8천246
9	라디오 데이즈	4만 5천90	19만 6천709
10	엘라의 모험:해피엔딩의 위기	4천 1천328	29만 6천614

〈자료제공 : 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34.1
2	이산	MBC	33.6
3	무한도전	MBC	28.8
4	엄마가 뿔났다	KBS2	25.8
5	조강지처 클럽	SBS	24.6
6	국제축구〈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MBC	22.6
7	대왕 세종	KBS1	21.9
8	특집 이산 스페셜	MBC	21.8
9	행복합니다	SBS	21.1
10	뉴하트	MBC	20.2

〈자료제공 : 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식객	드라마
2	바르게 살자	코미디
3	색, 계	드라마
4	킹덤	공포
5	디 워	액션
6	쏘우 4	공포
7	싸움	드라마
8	스카우트	코미디
9	러시아워 3	액션
10	화려한 휴가	드라마

〈자료제공 : 비디오코리아〉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보고 싶은 날엔	박지헌
2	Love	브라운아이드걸스
3	남자 때문에	주
4	마지막 인사	빅뱅
5	Kissing You	소녀시대
6	How Gee	빅뱅
7	그깟 사랑	먼데이키즈&VOS&일락
8	이바보	원더걸스
9	너는 내 운명	하하
10	슬픈 발걸음(구두 II)	씨야

〈자료제공:멜론〉